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전매체> 11.15.(화) 10:00	배포 일시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일자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문종원 (044-204-7442)

이영 장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파악

-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 -

□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4층 회의실)에서 제조·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시 겪게 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21.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2년 말까지 허용한 제도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최근 체제(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 개요

□ 목적

○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등**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건의사항** 파악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1. 15(화) 10:00 ~ 11:00 /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층 회의실

○ **(주요내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등 주52시간 관련 영세 중소기업 현장**의 긴박한 **애로·건의사항 청취**

○ **(참석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조·IT·서비스 분야 영세 중소기업 대표 10명**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관 배석

□ 세부일정

*** 애로·건의사항 청취까지만 언론 공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3	(3′)	○ 장관 입장, 순회 인사	장관
10:03~10:05	(2′)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0:05~10:07	(2′)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7~10:10	(3′)	○ 인사말	장관
10:10~10:25	(15′)	○ 애로·건의사항 청취	참석기업
10:25~10:58	(33′)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0:58~11:00	(2′)	○ 마무리	장관